

## 보건소 근무 간호사의 건강문제와 업무성과 손실

조정민\* · 김규성\*\* · 김미혜\*\*\*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사망 및 질병 구조가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건강문제 또한 점차 만성적인 양상으로 이행되어가고 있다(Ministry of Labor, 2005). 이러한 만성적인 건강문제들은 근로자 스스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음은 물론, 직장 내에서도 이로 인한 결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이러한 건강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나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과 결근 시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출근을 하게 된다(Lee, 2006). 그러나 근로자가 이러한 만성적인 건강문제를 가지고 출근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업무성과 손실 비용은 결근을 함으로 인해 생기는 손실 비용보다 크며,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Burton, Chen, Conti, Schultz, Paransky, & Edington, 2005; Goetzel et al., 2004; Hump, 2004).

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 국민 평생건강 증진사업을 활성화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할 중심인력인 간호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Choi, 2004).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력 중 대상자를 가장 가까이 접하는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성과 손실은 보건간호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지역사회 대상자들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실제 건강문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이는 보건소 간호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루어 진다고 알려져 있다(Kim, 2001).

특히, 만성적인 건강문제가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사업장에서 유발하는 업무성과 손실정도가 높다고 보고하면서 건강문제가 업무성과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들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Burton, Fransky, Conti, Chen, & Edington, 2005).

현재 업무성과손실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 연구로는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건강문제에 따른 업무성과손실과 결근율과의 관계를 본 연구(Lee & Jung, 2008)가 있으며, 간호직을 포함한 보건소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성과손실에 관한 연구(Park, 2008)가 수행되었고 보건소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 성신여자대학교 부교수(교신저자 E-mail: ccm9660@sungshin.ac.kr)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신성대학 부교수

투고일: 2009년 2월 4일 심사회의일: 2009년 2월 6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4일

상황이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군·구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관리하고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지방의료행정조직의 기본 단위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를 강화하고자 보건소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있어, 보건소 인력의 질적, 양적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소 인력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력이 간호사임을 고려할 때(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보건소 근무 간호사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소 근무 간호사는 간호사의 기본역할 외에 일반 행정업무 및 기타 부족한 보건소 내의 다른 인력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고, 지역주민의 수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Kim, So, & Kim, 2003). 또한 직업에 대한 헌신보다는 조직에 대한 소속의식이나 정체성이 더 중요한 가치로 작용함으로 인해(Kim, Yu, Choi, & Lee, 2001), 여러 가지 건강문제 및 이로 인한 업무성과 손실 기회가 많다. 따라서 보건소 근무 간호사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성과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간호사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의 업무성과 증대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보건소 근무 간호사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성과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간호사의 건강관리 및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소 근무 간호사의 인구학적 특성과 직무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보건소 근무 간호사의 건강문제를 파악한다.

셋째, 보건소 근무간호사의 건강문제와 업무성과 손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보건소 근무 간호사의 업무성과 손실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건소 근무 간호사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업무성과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과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 전체 25개구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8년 5월 15일에서 2008년 7월31일 사이에 연구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기관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목적과 연구 자료의 개인적인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480명에게 배포되었다. 수집된 설문지 중 설문에 불충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응답을 도중에 그만두어 자료이용이 부적합한 46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것은 434부였다.

### 3. 연구 도구

#### 1)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결혼상태로 구성하였고 직무관련 특성으로는 근무기간, 한달 수입,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 수, 근무부서, 근무시간의 자율성, 물적자원의 충분성으로 구성하였다.

#### 2) 건강문제

건강문제는 Turpin 등(2004)에 의해 개발된 SPS (Stanford Presenteesim Scale)를 토대로 Lee와 Jung(2008)이 번역하고 간호사용으로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알레르기, 피부 문제, 천식, 감기, 우울이나 불안감, 수면장애, 두통, 위장장애, 월경장애 및 폐경증상, 자궁이나 난소의 문제, 빈혈, 시력장애, 발의 피로 및 부종, 어깨, 등, 허리,목의 통증, 관절염, 기타

의 16가지로 구성하였고 지난 1개월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모두 기입하도록 하였다.

### 3) 업무성과손실

업무성과 손실이란 업무의 질이 정상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Koopman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Turpin 등(2004)에 의해 개발된 SPS(Stanford Presenteesim Scale)의 업무성과손실 점수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이는 근로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강문제로 인한 업무성과 손실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주의 집중영역 5문항과 직무이행 영역 5문항,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항상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0.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0.80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로 인한 업무성과 손실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건강문제, 건강문제 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업무성과손실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업무성과손실 차이 검증에서 유의한 변수로 파악된 변수들의 업무성과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서울시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로 연구 대상자 434명(100%)은 모두 여성 이었다. 연령은 46세 이상이 174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36세에서 45세가 159명(36.7%), 35세 이하가 101명(23.3%)이었다. 평균연령은 42.19세 이었다. 교육정도는 전문대학 졸업이 219명(50.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215명(49.5%)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종교는 대

상자 중 280명(64.5%)이 가지고 있었고 154명(35.5%)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356명(82.0%), 미혼이 78명(18.0%)이었다.

### 2. 직무관련 특성과 건강문제

대상자의 직무와 관련된 특성으로 보건소 근무기간은 2년 이하가 187명(43.1%), 3년에서 5년이 124명(28.6%), 6년 이상이 123명(28.3%)이었다. 월 급여는 이백만원 이하가 125명(28.8%), 이백만원에서 삼백만원이 235명(54.1%), 삼백만원 초과가 74명(17.1%)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5명 이하가 250명(57.6%), 26명 이상이 184명(42.4%)이었다. 대상자의 근무부서는 방문간호가 129명(29.7%)로 가장 많았고 모자보건의 96

<Table 1> General and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N=434)

Variables		n(%)
Age	≤35	101(23.3)
	36-45	159(36.7)
	≥46	174(40.0)
Educational status	Junior college	219(50.5)
	≥Bachelor	215(49.5)
Religion	Yes	280(64.5)
	No	154(35.5)
Marital status	Unmarried	78(18.0)
	Married	356(82.0)
Working period (yrs)	≤2	187(43.1)
	3-5	124(28.6)
	≥6	123(28.3)
Income(₩)	<2,000,000	125(28.8)
	2,000,000-3,000,000	235(54.1)
	>3,000,000	74(17.1)
Number of Nurses	≤25	250(57.6)
	≥26	184(42.4)
Working Department	Health promotion	82(18.9)
	Visiting nursing	129(29.7)
	Maternal child nursing	96(22.1)
	Primary clinic	36( 8.3)
	Other	91(21.0)
Autonomy of	Yes	21( 4.8)
Working time	Moderate	136(31.4)
	No	277(63.8)
Material Resources	Such enough	58(13.4)
	Enough	158(36.4)
	Lack	186(42.8)
	Such lack	32( 7.4)

명(22.1%), 건강증진이 82명(18.9%), 1차진료가 36명(8.3%), 기타부서가 91명(21.0%)로 나타났다. 업무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대상자중 21명(4.8%)가 자율적이다라고 답하였고 136명(31.4%)가 보통으로 277명(63.8%)가 자율적이지 않다 라고 응답 하였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물적 자원은 매우 충분하다가 58명(13.4%), 충분하다가 158명(36.4%), 부족하다가 186명(42.8%), 매우 부족하다가 32명(7.4%)이었다(Table 1).

보건소에 근무하는 대상자들이 지난 1개월 간 경험했던 건강문제들로 가장 많은 빈도로 경험한 건강문제는 VDT증후군의 증상들로 237명(54.6%)가 경험하였다. 다음은 감기증상으로 153명(35.3%), 위장관계 증상 140명(32.3%), 시력장애 138명(31.8%) 순이었다(Table 2).

〈Table 2〉 Health problems of respondents

Kinds of health problems	*n (%)
Allergy	63(14.5)
Skin problems	92(21.2)
Asthma	13( 3.0)
Cold	153(35.3)
Anxiety & depression	76(17.5)
Insomnia	67(15.4)
Headache	111(25.6)
Gastrointestinal	140(32.3)
Dysmenorrhea	45(10.4)
Uterus or ovary disorder	20( 2.3)
Anemia	32( 7.4)
Visual disorder	138(31.8)
Fatigue or edema of foot	87(20.0)
VDT(Shoulder, back and neck pain)	237(54.6)
Arthritis	30( 6.9)
Others	32( 7.4)

\* Double checked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의 수는 한 가지 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가 11.8%, 두 가지 30.4%, 세 가지 28.8%, 네 가지 23.2%로 모든 대상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Number of health problem

(N=434)	
Number of health problems	n(%)
1	51(11.8)
2	132(30.4)
3	125(28.8)
4	101(23.2)
Missing value	25( 5.8)

### 3.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별 업무성과 손실

대상자의 전체적인 업무성과 손실평균은 50점 만점에 24.71(SD=7.14)이었다.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업무성과 손실을 알아본 결과 연령, 결혼상태, 물적자원 충분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5세 이하(F=8.30, p<.001)에서 결혼 상태는 기혼(t=-1.99, p=0.50) 물적자원이 매우 부족한 집단(F=7.63, p<.001)에서 업무성과손실이 높은 것 나타났다(Table 4).

### 4. 건강문제와 업무성과 손실과의 상관관계 및 업무성과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문제 수와 업무성과 손실과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건강문제 수가 증가할수록 업무성과 손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153, p<.001).

업무성과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분산팽창요인도(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1-1.29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 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업무성과 손실을 종속변수로 물적자원, 연령, 결혼상태, 건강문제 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입력방법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건강문제 수가 업무성과손실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영향요인이 확인되었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15%이었다(Table 6).

<Table 4> Work impair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N=434)

Variables		Mean ±SD	t or F	p-value
Age group	≤35	42.14 ± 16.18	8.30	<.001
	36-45	37.64 ± 17.46		
	≥46	31.72 ± 18.26		
Educational status	Junior college	24.37 ± 6.90	4.14	.66
	≥Bachelor	25.05 ± 7.41		
Religion	Yes	36.08 ± 18.16	.76	.44
	No	37.67 ± 17.35		
Marital status	Unmarried	35.65 ± 17.55	-1.99	.05
	Married	40.97 ± 18.66		
Working period (yrs)	≤2	24.97 ± 7.10	.097	.90
	3-5	24.76 ± 6.94		
	≥6	24.53 ± 7.19		
Income(₩)	<2,000,000	25.21 ± 7.22	.307	.73
	2,000,000-3,000,000	24.85 ± 7.02		
	>3,000,000	24.24 ± 6.90		
Number of Nurses	≤25	25.25 ± 7.18	.299	.58
	≥26	24.06 ± 7.06		
Working department	Health promotion	38.65 ± 18.20	1.44	.22
	Visiting nursing	39.05 ± 15.11		
	Maternal child nursing	36.83 ± 19.94		
	Primary clinic	33.26 ± 19.84		
	Other	33.18 ± 17.40		
Autonomy of Working time	Yes	41.45 ± 19.20	.48	.61
	Moderate	36.07 ± 18.28		
	No	36.72 ± 17.52		
Material resources	Such enough	28.18 ± 18.57	7.63	<.001
	Enough	34.63 ± 18.09		
	Lack	39.93 ± 16.51		
	Such lack	45.90 ± 12.82		
Number of health problem	One	25.63 ± 5.39	1.73	.15
	Two	23.73 ± 7.27		
	Three	24.49 ± 7.22		
	Four	26.04 ± 7.02		
Total		24.71 ± 7.14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number of health problem and work impairment (N=434)

	Number of health problem r(p)	Work impairment r(p)
Number of health problem	1	
Work impairment	.15(<.001)	1

<Table 6> Influencing factors to work impairment

	B	SE	β	t	p	VIF
Material resources	2.19	0.48	0.25	4.51	9.29	1.03
Age	-0.19	0.05	-0.23	-3.77	<0.001	1.28
Marital status	0.32	1.17	0.01	0.27	0.78	1.29
Number of health problems	0.36	0.16	0.12	2.17	0.03	1.01
$R^2=0.15, F=12.25, p<.001$						

#### IV. 논 의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모집단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건

간문제에 따른 업무성과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을 한 결과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42.19세이었고 3년제 간호대학 졸업학력을 가진 대상자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의 비율이 50.5%, 49.5%로 두 집단간 비슷한 비율이었다. 대상자의 결혼상태는 82.0%가 기혼으로 나타나 Park(2008)의 여러 직종의 보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41세, 3년제 대학 졸업자 55.6%,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44.4%, 결혼상태는 대상자의 82.5%가 기혼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대상인 서울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들의 연령, 결혼상태, 학력 등의 일반적 특성 면에서 두 연구 집단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호소하는 건강문제로는 VDT증후군 증상인 어깨, 등, 허리, 목의 통증이 54.6%로 가장 많았고 감기 35.3%, 위장 장애 32.3% 순이었다. 이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Lee & Jung, 2008)에서 간호사의 75.1%가 어깨, 등, 허리, 목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대상자의 61.4%에서 발의 피로 및 부종, 52.5%에서 위장장애, 47.7%에서 감기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의 피로 및 부종을 제외한 건강문제들은 병원근무 간호사와 보건소 근무 간호사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빈도로 호소하는 건강문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병원근무 간호사와 보건소 근무 간호사 모두에서 어깨, 등, 허리,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근골격계 문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보건소 내 프로그램 개발과 보건학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Boles, Pelletier와 Lynch(2004)의 근로자의 건강문제수와 업무성과 손실과의 관계에서 건강문제가 1개 이상 있는 경우 업무성과 손실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결근시간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문제수가 1개에서 3개로 증가되면서 건강문제가 업무성과 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대상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문제 수와 업무성과 손실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건강문제가 많을수록 업무성과손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0.15$ ,  $p$

$<.001$ ). 이러한 결과는 Burton, Chen, Conti, Schultz와 Edington.(2005)의 연구에서 건강문제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업무성과손실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였다.

Levin-Epstein(2005)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건강문제를 한 두 개 가지고 있을 때는 업무성과손실을 스스로가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적으나 건강문제의 수가 증가되어감에 따라 업무성과손실정도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고 결근에도 영향을 주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근하여 일을 함으로써 야기되는 생산성 저하와 업무성과손실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소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Park, 2008)에서 업무성과 손실 평균은 28.27( $SD=3.83$ )으로 본 연구결과 24.71( $SD=7.14$ )과 유사한 평균치를 보였다. 병원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등, 2008)에서 업무성과손실 평균은 43.14( $SD=13.83$ )로 본 연구의 보건소 근무 간호사들의 업무성과 손실 평균인 24.71( $SD=7.14$ )과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32.46( $SD=9.30$ )에 비해(Lee, 2006)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보건소 공무원으로 정부조직 특성 상 내부적 통제가 엄격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분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Kim & Kim, 2005) 다른 직종에 비해 업무성과 손실이 낮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성과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물적자원, 연령, 결혼상태, 건강문제 수가 업무성과손실을 15%설명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같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낮게 나온 것은 본 연구에서 이용된 보건소 간호사의 직무관련 특성변수들이 선행연구나 문헌에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 일반적인 직무관련 특성 변수들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Burton 등(2006)과 Turpin 등(2004)의 연구에서 업무성과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 상 모두 여성 보건소 간호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보고된 성별에 대한 업무성과손실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건강문제수( $\beta=.12$ ,  $p=0.03$ )와 연령( $\beta=-0.23$ ,  $p<.001$ )가 업무성과 손

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업무성과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Park(2008)의 연구에서도 30세 미만의 가장 낮은 연령이 가장 높은 업무성과손실을 보인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업무의 숙련도가 높아 건강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과에는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물적 자원이 충분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업무성과손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 근무 간호사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근무 환경에서 물적자원의 충분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소 근무 간호사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성과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간호사의 건강관리 및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8년 5월에서 7월까지 서울시 소재 25개구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 건강문제와 업무성과손실을 파악하여 총 43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성별은 모두 여자였고 평균연령은 약 42세였다. 교육은 대상자의 50.5%가 전문대학 졸업이었고 49.5%가 4년제 대학 졸업이상 이었다. 종교는 대상자의 64.5%가 가지고 있었고 결혼상태는 82.0%가 기혼이었다.

둘째, 보건소 간호사 들이 호소하는 건강문제는 어깨, 허리, 목의 통증의 VDT중후군 증상들이 5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감기증상 35.3%, 위장관계증상 32.3%, 시력장애 31.8% 순이었다.

셋째, 대상자의 전체 업무성과손실은 50점 만점에 24.71(SD=7.14) 이었다. 연령, 결혼상태, 물적자원의 충분성에 따라 업무성과손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업무성과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건강문제

수가 업무성과손실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영향요인임이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15%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회귀모형 설명력이 1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 외에 업무성과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건강문제와 업무성과손실 결과를 따로 제시하여 건강문제에 따른 업무성과 손실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제한점이 있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사의 건강문제는 업무성과 손실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실무에서 간호사의 건강문제를 줄이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Boles, M., Pelletier, B., & Lynch, W.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risk and work productivity. *J Occup Environ Med, 46*, 737-745.
- Burton, W. N., Chen, C. Y., Conti, D. J., Schultz, A. B., & Edington, D. W.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 risk change and presenteeism change. *J Occup Environ Med, 48*, 252-263.
- Burton, W. N., Chen, C. Y., Conti, D. J., Schultz, A. B., Paransky, G., & Edington, D. W. (2005). The association of health risks with on-the job productivity. *J Occup Environ Med, 47*(8), 769-77.
- Choi, E. S. (2004). Present situation of korean nurse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0*(3), 190-199.
- Goetzl R Z., Long, S. R., Ozminkowski, R. J., Hawkins, K., Wang, S., & Lynch, W. (2004). Health, absence, disability, and presenteeism cost estimates of certain

-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ditions affecting U.S. employers. *J Occup Environ Med*, 46, 398-412.
- Hemp, P. (2004). *Presenteeism: at work-but out of It*. Harvard business review, October, 49-58.
- Kim, H. S. (2001). A comparative study regarding health condition and work stress of nurses working in cancer ward and general ward. *J Korean Oncology Nursing*, 1(2), 191-203.
- Kim, S. L., Yu, S. J., Choi, S. E., & Lee, S. H.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mitment of home health care nurses and public health nurses. *J Korean Community Nursing*, 12(1), 39-48.
- Kim, S. M., & Kim, Y. J. (2005). Analyzing the job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in Korea. *J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39(2), 63-87.
- Kim, S. O., So, H. Y., & Kim, H. L. (2003). A study on the fatigue and health promoting. *J Korean Community Nursing*, 14(4), 108 - 115.
- Koopman, C., Pelletier, K. R., Murray, J. F., Sharda, C. E., Berger, M. L., Turpin, R. S., et al. (2002). Stanford presenteeism scale: Health status and employee productivity. *J Occup Environ Med*, 44, 14-20.
-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2008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statistics*. Government Report, Seoul.
- Ministry of Labor. (2005). *2005 Labor statistics*. Government Report, Seoul.
- Lee, Y. M. (2006). *Effect of stress on presenteeism in workers of factory at Seoul-Kyonggi a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Lee, Y. M., & Jung, M. H. (2008). Presenteeism and absenteeism according to health problems on nurses. *J Korean Community Nursing*, 19(3), 459-468.
- Levin-Epstein, J. (2005). Presenteeism and paid sick days. *Center for law and social policy*. Retrieved March 23, 2006, from <http://www.clasp.org>
- Park, S. M. (2008). *The study on job stress and presenteeism of public health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Turpin, R. S., Ozminkowski, R. J., Sharda, C. E., Collins, J. J., Berger, M. L., & Billotti, G. M. (2004).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tanford presenteeism scale. *J Occup Environ Med*, 46, 1123-1133.



ABSTRACT

## Health Problems and Work impairment in Nurses Working at Community Health Centers

**Cho, Chung-Min**(College of Nursing, Sung Shin Women's University)

**Kim, Kyu-Sung**(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Kim, Mee-Hye**(College of Nursing, Shinsung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ealth problems and factors related to work impairment of nurses working at community health centers.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008 to July 2008 using a structured, self - reported questionnaire for general characteristics,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health problems and work impairment.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434 nurses from 25 community health centers in Seoul.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present health problems, shoulder, back and neck pain were ranked the highest at (54.6%), followed by cold, GI trouble, and visual disorders. The average score of work impairment was 24.71( $\pm$ 7.14) out of 50.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ajor factors that affect work impairment were age and number of health problems, and that these factors explained 15% of the work impairment. **Conclusion:** Age and number of health problems are the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work impairmen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health condition of nurses at community health centers must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nursing service.

**Key words :** Nurses, Community health center, Health